광주 대성학원·본보 공동 18일 KT서 입시설명회

수험생 대입 정보전 촉각

중앙학원·대교협 등도 잇따라 개최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발표와 함께 본격적인 입시 정보전쟁이 시작됐다.

정시모집 원서접수(12월21일~27일)와 전형(12월28일~2월2일)에 앞서 입시전문기관과 대학들이 대입정보를 제공하는 입시설명회를 잇달아 열며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광주 대성학원은 광주일보와 공동으로 오는 18일 오후 2시 KT광주정보통신센터에서 '2007학년도 대입 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이영덕 서울 대성학원 평가실장이 강사로 나서 수능 채점 결과에 따른 정시모집 지원전략, 대학별 논·구술 대비전략 등을 설명한다. 특히 우부남 광주 대성학원 진학실장이 광주·전남지역 대학 관련 정보를 중점적으로 분석해 제공한다.

중앙학원은 19일 오후 5시 광주시 서구 여성발전센터 대강당에서, 유웨이중앙교육도 20일 오후 2시 조선대 서석홀에서 각각 입시설명회를 연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4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1층 태평양홀에서 2007학년도 대학입학정보박람회를 개최한다. 박람회에는 목포해양대·대불대 등 광주·전남 2개 대학을 비롯한 전국 50여개 4년제 대학이 참가해 수험생과 학부모, 진학담당 교사들에게 다양한 대입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박람회장 내에 설치된 종합정보관에서는 전국 201개 4년제 대학의 입학정보를 검색할 수 있으며 전국 고교 진학지도부장으로 구성된 '대학입학 상담교사단'의 현장상담도 받을 수 있다.

참가대학은 ▲광주·전남북 : 목포해양대 대불대 원광대 ▲서울 : 가톨릭대 광운대 국민대 단국대 덕성여대 동국대 동덕여대 삼육대 상명대 서경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세종대 숭실대 한성대 ▲인천·경기 : 인천대 한경대 강남대 경기대 경원대 대진대 성결대 수원대 아주대 안양대 용인대 인하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항공대 한세대 협성대 등이다.

행사 기간 2007학년도 정시모집 주요사항 설명회와 논술·구술 강좌도 각각 7회씩 열린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방학 앞두고 여권 신청 북적 14일 광주시청 민원실에서 여권을 발급 받으려는 시민들이 신청서를 쓰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 겨울방학을 맞아 자녀와 함께 여행하려는 시민들이 늘면서 여권 신청건수가 평소보다 1.5배 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광주·전남 대형 트리 비용 얼마 들었나

밤 거리를 아름답게 수 놓는 크리스마스 트리.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온 세상에 '사랑'의 의미를 전파하지만, 설치와 유지 비용은 만만치 않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켜는데 드는 전기료는 얼마일까?

보성군이 지난 8일 회천면 봇재다원에 설치한 높이 140m 폭 130m의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는 설치하는데만 1억7천만원이 들었다. 전구는 모두 50만개로 매일 오후 6시~밤 11시까지 점등하는데, 한 달에 평균 300만원의 전기료가 들 것으로 추정된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광양시가 지난 7일 5천만원을 들여 광양시청 앞 야외공연장(700평)에 설치한 경축트리의 경우 전구가 80만여개나 된다. 설치를 대행한 '월드디자인'은 트리를 내년 1월21일까지 매일 오후 5시30분~자정 점등하며, 전기료는 총 3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성 차밭 트리 1억7천만원
금남로 월 전기료 1백만원

광주시 기독교협의회가 지난 1일부터 금남로 분수대에 설치한 크리스마스 트리의 전구는 1만2천개, 점등시간은 매일 오후 6시~다음날 새벽 2시까지다. 두 달을 점등하는데 200만원이 넘는 전기료가 들 것으로 보인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대형 백화점에도 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달 3일 백화점 내외에 10만개의 전구를 설치했으며, 전기료는 시간당 7천원이 드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루 6시간(오후 5시~밤 11시) 점등하는데 4만2천원, 한 달에는 120만원 가량 전기료가 든다.

광주 신세계백화점은 지난달 1일부터 크리스마스 트리를 점등했다. 매일 오후 5시30분부터 폐점(평일 오후 8시·주말 오후 8시30분) 뒤 15분까지 점등하며, 전기료는 한 달 평균 40만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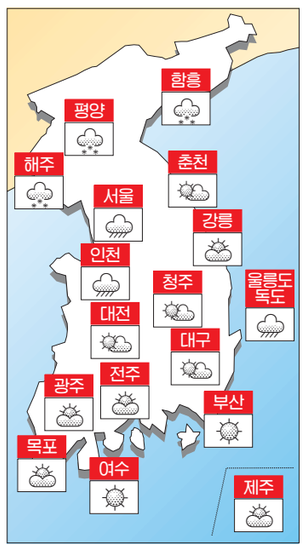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하늘에 잔뜩 낀 구름

12월 15일 (음 10월 25일) ◇전국날씨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구름이 많겠다.

광 주	구름 많음	1~10℃
목 포	구름 많음	2~10℃
여 수	구름 조금	5~11℃
완 도	구름 조금	4~11℃
구 례	구름 많음	-1~11℃
해 남	구름 조금	1~10℃
장 흥	구름 조금	1~11℃
고 흥	구름 조금	2~11℃
순 천	구름 많음	-2~11℃
영 광	구름 많음	0~11℃
진 도	구름 많음	3~12℃
전 주	구름 많음	1~11℃
남 원	구름 많음	-2~11℃
정 읍	구름 많음	1~11℃



서해남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1.0~2.0m
먼바다=남서~서풍 파고 1.0~2.5m
남해서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1.0~2.0m
먼바다=서~북서풍 파고 1.0~2.5m

목 포 밀물 10:08 22:09 썰물 03:12 15:52
여 수 밀물 05:36 17:22 썰물 11:31 23:38

▲해뜸 07:33 ▲해짐 17:22 ▲달뜸 02:16 ▲달짐 13:41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6(토)	17(일)	18(월)	19(화)	20(수)	21(목)
날 씨						
최저/최고	1/5	-5/3	-4/6	-3/7	0/8	1/7

형사범 10명중 2명 '음주 범행'

29%는 '묻지마 범행'

사기나 절도, 폭력, 도박 등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10명 중 2명꼴로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고 전체 피의자의 28.6%는 특별한 동기도 없이 형법을 위반한 이른바 '묻지마 범행'으로 사법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대검찰청이 펴낸 '2006년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검거된 형사범 중 법인(法人)을 제외한 82만9천478명의 정신상태를 분석한 결과 19.8%(16만3천908명)가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살인, 강도, 방화, 강간 등 강력범죄로 처벌된 범죄자 1만3천134명 중 29.1%(3천823명), 폭력, 상해, 협박, 공갈 등 범죄자 14만301명 중 41.1%(3천622명)가 취중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과자의 경우 검·경에 붙잡힌 40만8천817명 중 30.7%(12만5천638명)가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흉악범죄로 처벌된 전과자 7천605명 중 37.2%(2천829명), 폭력범죄 전과자 20만4천947명 중 51.9%(10만6천358명)는 술에 취해 '범죄의 늪'에 빠졌다.

또 형사범 중 28.6%(24만7천718명)는 검·경의 조사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파행 진흥중·고 임시이사회 구성

광주시교육청은 14일 학교법인 송암학원(진흥중·고)이 설립자 사망 후 이사회 파행 운영 등으로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힘들어 임시이사를 선임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송암학원(설립자 조규진·지난 3월 작고)의 이사회 정수가 9명인데도 8명의 이사가 사임·임기만료 등으로 그만둬 이사회 기능이 마비돼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임시이사회 구성이 불가피해 사립학교법 제25조에 의거해 임시의사를 선임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조만간 교육청과 진흥중·고 추천인 각 3명, 교수와 변호사, 언론인 각 1명 등 모두 9명을 임시이사로 선임할 계획이다.

한편 설립자 조씨의 큰 며느리인 임모씨가 "진흥중·고가 북구 운암동에서 광산구 신창동으로 이전할 당시 불법이 저질러졌다"며 광주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해 파문을 낳고 있다.

임씨는 고발장에서 "2002년 10월께 학교이설 과정에서 법인관계자 누군가가 부동산 소개업자 김모씨의 명의를 빌려 개인 소유 임야(298㎡)를 실제 1억5천만원에 매입했음에도, 2억5천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해 1억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임씨는 "이 사건은 송암학원 이설 과정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불법 중 일부"라고 덧붙였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시중 간장·식용유 상당수 유전자 변형 콩 원료 사용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간장과 식용유 상당수가 유전자변형물질(GMO)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10월 대형 할인매장을 중심으로 시중에 많이 유통되고 있는 콩과 옥수수를 원료로 한 제품에 대해 시장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서울환경연합이 조사한 제품은 16개 기업에서 생산된 식용유·옥수수유·간장·된장·고추장·쌈장·두부·두유 등 8개 품목 125개 제품이다.

조사결과 간장의 경우 총 18개 제품 중 GMO 원료를 사용한 제품은 5개, GMO 원료사용 공개를 거부한 제품은 8개였다. 식용유는 총 4개 제품 중 GMO 원료를 사용한 제품이 1개였다. 간장과 식용유에서 GMO를 원료로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현행 GMO표시제에서 간장과 식용유가 표시대상에서 면제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동부교육장 이종현씨 서부교육장 장관수씨

광주시교육청 임용 제청

광주동부교육장에 이종현(55) 광주학생교육원장이, 서부교육장에 장관수(60) 광주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이 각각 임용 제청됐다.

광주시교육청은 14일 교육장 공모제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두 사람을 교육부에 임용 제청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일선 학교 교장과 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교육국장 등을, 장 과장은 일선 학교 교장과 시교육청 인사담당 장학사·장학관 등을 각각 역임했다. 교육부는 두 사람의 검증 과정을 거쳐 다음주께 최종 임용할 계획이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지리산 탐방로 내일부터 전면 개방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사무소는 산불예방을 위해 지난달 15일 입산통제했던 종주 능선(장터목~벽소령~노고단)을 포함한 모든 정규 탐방로를 오는 16일부터 전면 개방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리산사무소는 그러나 산불 취약지역과 지정된 장소 외 취사·야영, 무속행위, 흡연 등 위법행위에 강력하게 단속키로 했다.

야생 동·식물보호를 위한 출입통제지역, 자연휴식년제 구간, 비법정 탐방로 등은 여전히 출입이 통제되며, 위법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